

황서국서 어매장군(御侮將軍).¹⁾ 짐씨영감(金氏令監) 그영신내 부름 우로 들어상 앞원 삼천백매 뒤엔 일만초깃발. 책(冊)지기²⁾ 붓(筆)지기 문서(文書)지기 도감(都監)지기 이 모슬(里) 장적 호적(帳籍戶籍) 초지한 한집님.

난시본산국은 서울 황정싱(黃政丞)의 아들(子)이 식성제(三兄弟) 이십데다. 황정싱이 병(病)이 드난 벡약(百藥)이 무효(無效)웨고 지냥으로³⁾ 즘(占)을 치난 황우설(黃牛血)을 받아 먹어사 병(病)이 낫게 됨데다.

도쟁이 피쟁일⁴⁾ 불러 잡젠⁵⁾ 허여도 황정싱이 역적(逆賊)에 몰려 노난⁶⁾ 나라의서 황정싱(黃政丞)이 황우설(黃牛血)을 먹으민 살아나 카부덴⁷⁾ 문딱⁸⁾ 잡아단 가쳐부난⁹⁾ 피쟁이 도쟁이(屠匠)이 엉어진다.

아들이나 불령 잡아도렝 허여 보카.¹⁰⁾ 큰아들 불러도 응(應)도 강(感)토 아니하고 셋아들(次男) 불러도 응도 강토 아니하니. 족은 아달(末男) 불러다 황우설(黃牛血) 받아오랜 말씀¹¹⁾ 난 족은 아달이 부몰 살려사키엔¹²⁾ 춤씰로¹³⁾ 황우(黃牛)야깰¹⁴⁾ 걸련 고암(高喊)을 지르난 쉬(牛)가 놀레연¹⁵⁾ 나오니. 대한간의서¹⁶⁾ 황우설(黃牛血)을 받아단 아바님을 드립데다.

아바님이 살아나고 말씀¹⁷⁾ 했네

『너는 역적(逆賊)에 몰려¹⁸⁾ 이디 살 수가 엇일 거니 어서 피란(避難)하라.』

피란을 오는디 제주를 상(向)허여 오라 골막(東福里)으로¹⁹⁾ 들언 장군설(將軍血)을²⁰⁾ 디디고 나려오단 보난 심뜰(始興里)²¹⁾ 허풍언(許風憲)이 풍언(風憲) 살레²²⁾ 감시난²³⁾ 춤매로²⁴⁾ 환싱(還生) 허여 앞의 들언 어지리난²⁵⁾ 허풍언이 말을 헛는디

『어떤 짐승이 앞의 너미²⁶⁾ 번람(煩亂)하다.』

큰 소리를 지르난

1) 어매장군(御侮將軍): 이 당의 당신명.

2) 책(冊)지기: 책을 지키는 이.

3) 지냥으로: 자기대로.

4) 피쟁일: 백정을.

5) 잡젠: 잡자고. 잡으려고.

6) 노난: 놓으니.

7) 카부덴: 살아날까보다고.

8) 문딱: 모두.

9) 가쳐부난: 가두어 버리니.

10) 보카: 잡아달라고 해 볼까.

11) 살려사키엔: 살려야겠다고.

12) 춤씰로: 참실로.

13) 황우(黃牛)야깰: 모가지를.

14) 놀레연: 놀라서.

15) 대한간의서: 대청에서. 상바엥서의 뜻.

16) 몰려: 몰려.

17) 골막(東福里)으로: 구좌면 동복리(舊左面東福里).

18) 장군설(將軍血)을: 지리 풍수설(地理風水說)적으로 장군이 날 지맥.

19) 심뜰(始興里): 성산면 시흥리(城山面始興里)

20) 살레: 살려.

21) 감시난: 가고 있으니.

22) 춤매로: 참매.

23) 어지리난: 어지르니까. 어지럽히니까.

24) 너미: 너무.

『그만한 풍언(風憲) 살만 했다.』

허여 비싸고²⁵⁾ 장군설(將軍血)을 디디여 종달리(終達里) 서무오름²⁶⁾ 오라 좌정(坐定) 헥카 허연²⁷⁾ 보난 예즈(女子)덜이 모살삼태²⁸⁾ 들고 소곰(鹽)을 허염시난²⁹⁾

『너미 강포(強暴) 했다. 좌정 훌 디 못뒈다.』

허여 나아사고 보니 심뜰(始興) 큰물머리로³⁰⁾ 장군설(將軍血)이 떨어져시난 이디나 좌정 헥카 허연 와 보니 허풍언(許風憲)이 불씨³¹⁾ 산(墓)를 써 부러시난³²⁾

『못 쓰겠다. 올라사자.』

손당(松堂) 높은오름³³⁾ 올라사 옥통저(玉洞簫)로 날 새고 밤 새고 놀단³⁴⁾

『영 허여도³⁵⁾ 못쓰겠다. 할락산(漢拏山)을 올라가자.』

오백장군(五百將軍) 오백선성(五百先生) 구경(求景) 향고 인간(人間)을 등경³⁶⁾ 누려사저. 장군설(將軍血)을 디디니. 장군설이 정잇골(旌義縣)³⁷⁾ 멍동무루에³⁸⁾ 떨어져시난 그디 오라³⁹⁾ 앗아 보니 정잇골(旌義縣) 관개(官家)덜이 죄인(罪人)을 심어단⁴⁰⁾ 답달⁴¹⁾ 훌 게 문에 베여.

『이것도 더럽고 추접 했다.』⁴¹⁾

장군설을 다시 보니 난미(蘭山里)로⁴²⁾ 떨어져시난 난미(蘭山)로 누려오라 보니, 골미당이⁴³⁾ 잇어지니.

『이것도 더러와 못쓸로다. 와갱이(三達里)로 누려가자.』

와갱일 오란 보난⁴⁴⁾ 『빈촌(貧村)은 빈촌이라도 좌정(坐定) 훌 만 했다. 매민물도⁴⁵⁾ 좋아지고 베릿물(硯水)도 좋아지고 식수물(洗手水)도 좋아지고.』

당꼴엘⁴⁶⁾ 간 보니, 짐씨영감(金氏令監)이 벵(病)들언 죽어 감시난⁴⁷⁾ 뒤의⁴⁸⁾ 큰낭⁴⁹⁾ 상가지(上枝)에 앗안 꿈에 선몽(現夢)을 드리워

『벡돌례예⁵⁰⁾ 벡시리예⁵¹⁾ 주소지(燒酒)예 너의 집 상고팡(上庫房)으로 우판(位版) 모상⁵²⁾ 우로

25) 비싸고: 비끼고.

26) 서무오름: 서무오름은 조천면 함덕리(朝天面咸德里)와 북촌리(北村里). 경계악(境界岳)인데

27) 허연: 할까 해서.

28) 모살삼태: 모래 나르는 삼태기.

29) 허염시난: 하고 있으니.

30) 큰물머리로: 시흥리(始興里)의 지명.

31) 불씨: 벌써.

32) 부러시난: 버렸으니까.

33) 높은오름: 구좌면 송달리(舊左面松堂里)의 악명(岳名).

34) 놀단: 놀다가.

35) 허여도: 이리해도.

36) 등경: 당기어. 이 구(句)는 인간이 사는 마을로 가까이 내려서 고자의 뜻.

37) 정잇골(旌義縣): 지금의 표선면 성읍리(表善面城邑里).

38) 멍동무루에: 성읍리(城邑里)의 지명.

39) 오라: 거기 와서.

40) 심어단: 잡아다가.

41) 추접 했다.: 더럽다. 추잡.

42) 난미(蘭山里)로: 성산면의 이명(里名).

43) 골미당이: 난산리(蘭山里) 당명(堂名)인데 쉘당(牛堂)이라 하여 하시(下視)한 것임.

44) 보난: 와서 보니.

45) 매민물도: 미상.

46) 당꼴엘: 당이 있는 곳.

47) 감시난: 가고 있으니까.

48) 뒤의: 뒤에. 집 뒤의 뜻.

49) 큰낭: 큰 나무.

50) 『벡돌례예: 흰 도래떡.

51) 벡시리예: 흰 시루떡.

52) 모상: 모셔서.

(慰勞) 흐민 널 살려주마.』

짐씨영감(金氏令監)이 기영 허연⁵³⁾ 우로(慰勞) 흐난 뱅(病)이 낫아⁵⁴⁾ 살아나고 상통천문(上通天文) 하달지리(下達地理)해야 죽을 사름 살 사름 다 알아 아이 궤로와도⁵⁵⁾ 어른 궤로와도 짐씨영감(金氏令監) 영급(靈及)이 좋아 살려지니. 돈을 어이에⁵⁶⁾ 베슬언⁵⁷⁾ 거부재(巨富者) 웅데다.

그 때 아옵해 승년(九年凶年)이 져 주손⁵⁸⁾ 가정(子孫家庭)덜이 다 굶어 죽게 웅여가난. 잠씨영감(金氏令監)이 혼집의 닷웨(五升)씩 혼말(一斗)씩 수제분급(私財分給)을 주난 굶어 죽단⁵⁹⁾ 벡성(百姓)이 살아납데다.

나라에서 이 사실(事實)을 알아네⁶⁰⁾ 짐씨영감(金氏令監)을 불러단

『죽어가는 주손덜 수제분급(私財分給)허연 살려줘시니 통정대부(通政大夫) 베슬을 주마.』

받아아전⁶¹⁾ 오라네⁶²⁾ 그대로 주손 가정(子孫家庭)덜 좀 흐멍 살단.⁶³⁾ 늙어 죽게 웅난 나라레⁶⁴⁾ 보고(報告) 흐니

『신체(身體)는 죽어도 신시는⁶⁵⁾ 내여주마.』

허연, 밤낭(栗木)으로 신시를 무언⁶⁶⁾ 내여줍데다. 「황서국서어매장군 두부처(兩夫妻) 흐고 신시를 내여주니 전데조손(傳代子孫) 데데유전(代代遺傳)허여 우양적선(爲養積善) 흐라」 허여 위^흐는 한집님.

앞원 삼천뱅매 뒤엔 일만초깃발.

- 城山面 新山里 女巫 金永善 口誦

현용준, 『제주도 무속자료사전』, 신구문화사, 1980, pp.689-693.

53) 허연: 그리해서.

54) 낫아: 나아.

55) 궤로와도: 괴로와도. 곧 앓아도의 뜻.

56) 어이에: 잠깐 사이에.

57) 베슬언: 벌어서.

58) 주손: 이 당신을 숭앙하는 단골(信仰民).

59) 죽단: 죽던.

60) 알아네: 알아서.

61) 받아아전: 받아 가지고. 받아서.

62) 오라네: 와서.

63) 살단: 점하며 살다가.

64) 나라레레: 나라로. 나라에.

65) 신시는: 신위.

66) 무언: 만들어의 뜻.